

플라톤의 『국가』 : 영혼의 윤리학

제 2장 『국가』의 형식과 역사적 배경

◆ 1교시 『국가』의 형식

▲ 대화편의 시기구분과 『국가』의 상관성 - 1권과 2-10권의 구분

사실 제가 좀, 이제 복잡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그 얘기가 『국가』하고 무슨 상관성이 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국가하고도 좀 상관성이 있는 것어요. 흔히들 이제, 역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국가』 1권하고 2권부터 10권을 나눠가지고, 『국가』 1권을 초기 대화편이라 하고 2권부터 10권까지는 중기 대화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제가 아까 『국가』는 중기 대화편이라는 것은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건 2권부터 10권까지의 이야기이구요. 『국가』 1권의 경우에는 그것이 초기 대화편이라는 주장이 한때 굉장히 유행이었던 주장 중의 하나입니다. 적어도 20세기 초반, 중반, 이때까지는 굉장히 유행이었던 주장이구요. 사실 이 그 박종현 선생님 『국가』 해제에도 보면 그 1권 1절에 초기 대화편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 1권이 초기 대화편이고 2권에서 10권까지 중기 대화편이라는 생각을 좀 받아들이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1권을 떼놓고서, 1권이 초기 대화편이고 2권부터 10권까지는 중기 대화편이라는 생각은 뭐냐 하면, 1권은 초기 대화편으로 쓰였고 나중에 2권부터 10권이 추가됐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초기 하나는 초기 대화편이고 나머지는 이제 중기 대화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국가』 전체의 통일성이 약간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작품 중에 1부가 하나의 독립적인 작품이라고 한다면, 전체와 관련해서 보자면 이제 약간 좀 유기적인 연결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 『국가』 1권의 형식 - 논박

사실 분명히 『국가』 1권은 나머지 2권부터 10권까지 하고는 형식적으로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권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다른 사람들, 이제 구체적으로 폴레마르코스하고 트라시마코스죠. 그 사람들의 주장을 논박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폴레마르코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니깐, 그것이 어떠어떠해서 틀렸다는 논박들을 막 하구요. 그 다음에 트라시마코스가 등장해서... 너희들 헛소리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의는 바로 또 뭐다하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장을 검토해 가지고 또 논박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끝에 가서 소크라테스가 정의가 뭐다, 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고서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보통 초기 대화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떤 누구에게 경건이 뭐냐, 용기가 뭐냐, 절제가 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떤 대답을 하면 소크라테스가 막 논박을 하구요. 끝에 가서 다 논박되었으니까 용기가 뭔지 모른다, 절제가 뭔지 모른다, 그러고서 끝나버리는 형식을 많이 갖고 있던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국가』 1권은 보통 초기 대화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하고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국가』 2-10권의 형식 - 개념 규정과 주장 제시

2권부터 10권까지 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아마 느끼셨을 수도 있고, 만약 읽어보시면서 느끼시게 될 텐데요. 2권부터 10권까지 가서 보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자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주장을... 너 뭐야 질문 던지고서 그 답에 대해서 논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걸 이렇고 저런 저렇고, 이러이러하게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쭉 나가요. 그리고 이제 『국가』 4권쯤에 가면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소크라테스 자신이 정의는 이런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박종현 선생님 번역에서는 제가 정의라고 하는 것이 올바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는 디카이오쉬네라는 말이고, 일반적으로 정의, 영어의 Justice, 그 정의로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박종현 선생님은 이제 또 그 이유가 있으셔서 이제 올바름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올바름이라는 번역보다 정의라는 기존의 번역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정의라고 말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정의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읽으시는 텍스트에는 올바름이라는 말로, 그것이 번역되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점에 있어서 분명히 1권과 나머지 것들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소크라테스가 주로 질문을 던지고 끝에 답이 없이 끝나는 것이 초기 대화편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에 비추어보면 『국가』 1권은 초기 대화편이라고 이야기해야지 될 겁니다. 사실이 이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 『국가』 1권이 초기 대화편에 미리 쓰였던 것이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었던 거구요. 박종현 선생님도 그렇게 해서, 여기 『국가』 해제에 그렇게 쓰셨던 건데...

▲ 『국가』 1권과 2-10권을 구분할 수 없는 이유 - 목적에 부합하는 형식의 차이

그런데 이제 아까 쭉 이야기했던 것하고 비추어서 말해 보자면, 그 플라톤이 이러저러한 대화편을 쓸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화편을 썼을 텐데요. 그 목적에 잘 부합하는 형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잘 부합하는 형식이라는 것이, 예컨대 누군가가 안다고 막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사실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그 논박하는 방식의 글을 쓰는 것이, 대화가 진행되는 것이 적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목적에 잘 봉사하는 방식의 드라마적인 장치라는 것이, 소크라테스가 자기 얘기는 안하고 남의 얘기를 논박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런데 논박만 해가지고는 뭔가 이 이야기가 안 되고, 뭔가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야지 될 것 같다고 하면, 만약에 그 목적에 봉사하려면 소크라테스가 논박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대화편에서 논박하는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것이, 논박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뭐 그 어떤 이야기를 하는 대화편이 『국

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목적에 잘 봉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박만 하는 것이 뭔가 좀 잘 안되다, 논박을 넘어서서 뭔가, 그 내용이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처음에 논박부터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방식으로 논박을 넘어서 어떤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그 전체를 다 한 대화편에 보여줄 어떤 목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아니 그러니까 플라톤, 저자 플라톤이 말이죠. 그러니까 플라톤, 저자인 플라톤이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시기하고 상관없이 말이에요. 시기하고 상관없이 어떤 대화편은 논박적인 방식으로 대화편을 쓸 수도 있고, 어떤 대화편은 등장인물이 자기 얘기를 막 하는 방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어떤 대화편은 두 가지를 다 보여줌으로써, 논박하는 주인공과 자기 얘기를 하는 주인공을 다 보여줌으로써, 논박만 하는 것 말고는 뭔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바로 『국가』가, 만일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플라톤이 『국가』를 쓰면서 바로 그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국가』편 내에서 논박적인 형식의 대화 진행과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대화 진행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떤 드라마적, 드라마적 입장에서 볼 때 말이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1권은 논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2권 이후부터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서로 문체상 잘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드라마적인 통일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드라마적인, 『국가』편의 드라마적인 통일성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느냐 하면, 처음에는 논박하는 방식의 소크라테스를 보여주고, 그것만 가지고서는 뭔가 소크라테스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서는 소크라테스가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그런 방식의 소크라테스를 보여주는 것,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 논박의 효과

그러니까 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논박을 하는 것이 갖게 되는 효과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 소위 초기 대화편들에서 소크라테스가 주로 논박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누군가가 막 자기가 용기가 뭔지, 절제가 뭔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막 이런저런 행동들을 해요. 그럼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네가 사실은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히틀러나 전두환 같은 사람들, 역사적으로 그 뭐 악인이라고 대충 이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나는 나쁜 짓 하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고서, 나는 역사의 악인으로 이름을 날리겠다,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유태인 학살을 한다든지, 광주에서 어떤 일을 벌인다든지, 뭐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이 일이 정말 옳은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념이 없으면, 아이 씨 뭐 남들 이렇게 살건 말건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래, 뭐 이려고 말겠죠. 하지만 오히려 신념을 가지고 나쁜 짓 하는 게 더 문제예요, 진짜. 그러니까 유태인들, 이거 다 없애자, 사회 암적인 존재들이다, 다 몰아내버려

야 된다, 유대인들 동성애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여 버려야 된다, 그래서 막 죽이고... 히틀러 시대 나치가 그렇게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네가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행동을 할 경우에는 뭐예요? 이 행동이 옳다고 하는 굳은,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 네가 진짜 옳은 게 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옳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잘 안다고 빠지고 다니는 사람들, 사실 쫓아가서 너 정말 아는 게 맞냐, 라고 물어보고 나서 안다고 대답했을 때, 사실은 네가 아는 게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논박이,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효과, 논박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 논박의 한계와 새로운 주장 제시의 필요성

근데 문제는, 어떤 경우에는 실컷 논박을 막 하고나면, 어 그래, 뭐 한참 말싸움하다 보니까 너한테 안 되겠어, 어 너 잘났다,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싸움에선 졌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싸움만 진거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옳은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네가 그렇게, 어떤 주장하는 것 다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불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뭐다, 구체적으로... 뭐 이제 우리 수업하고 관련해서 트라시마코스도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남한테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어도 약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자신한테는 정의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국가』 1권에서 이제 바로 소크라테스 막 논박을 해요. 막 논박을 했는데, 말싸움에서 트라시마코스가 진단 말이에요. 지고 나서 트라시마코스가, 혹은 그런 말싸움을 벌인 사람들이 진짜 정의가 자기 자신한테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자기 자신에게 좋다는 생각으로 정의로운 행동들을 하게 되느냐? 반드시 그렇지 않단 말이죠. 도대체 정의가 뭐고, 왜 이게 진짜 좋은 건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단순히 정의가 남들한테만 좋은 거다, 라는 얘기를 논박하는 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논박한 것으로 안 되니까 논박을 넘어서 좀 다른 작업들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국가』 편에서 2권부터 10권까지 하는 작업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1권에서 정의가 뭐 그 남한테 좋은 거다, 하는 이런 얘기를 트라시마코스가 주장하니까 그걸 막 소크라테스가 논박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2권에서 뭐 글라우콘이나 아데이만토스 같은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것 갖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동의를 하고서,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정의가 도대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구요. 그 이야기를 하러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져 가지고 이제 2권부터 10권까지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 『국가』 전체의 통일성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보여주는데 있어서는 바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국가』의 형태, 1권하고 나머지 권들이 뭔가 문체상에 있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그런

목적에 잘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통일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통일성이, 『국가』가 지금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통일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권을 따로 떼어내 가지고 초기 대화편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그렇게 적절한 근거로 잘 생각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초기 대화편이고, 어떤 것이 중기 대화편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주어져 있으면, 그것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죠? 『국가』 1권을 초기 대화편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건 초기 대화편인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길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면서... 사실 좀 그 좀 지겨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사실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국가』하고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어떤 것이 초기 대화편이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한다면, 『국가』 편의 1권을 따로 떼어내서 가지고서 그것을 따로 초기 대화편이라고 부를 만한 충분한 근거도 없고, 다 붙여서... 물론 언제 쓰였는지는 몰라요. 플라톤이 처음에 어떤 작업을 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좀 그것을 고치고, 또 뒤에 가서 고치고 이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들 전체가 다 처음엔 좀 어느 정도 쓰였다가, 나중에 또 얼마만큼 추가가 되고, 또 나중에 얼마만큼 추가가 되고,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장이 어느 정도 그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가능성도 이제 열려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도대체 어떤 일부분은 어디에 쓰였고 이거 막, 그 따지기도 어려운거 따지지 말고, 그냥 『국가』 전체를 하나의 대화편, 통일적인 대화편으로 읽어 보자, 하는 것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예요.

◆ 2교시 대화 형식의 특징과 효과

▲ 플라톤 대화편의 특이성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대화편으로 써서 우리가 이 골머리를 쓰게 만드느냐. 플라톤이 이걸 이렇게, 저걸 저렇게, 이러면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서 막 어떤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 논파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플라톤이 자기 입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지 된다, 적극적으로. 단순히 남의 주장을 펴 나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도 좀 해주어야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의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플라톤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해석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없었을 텐데, 도대체 왜 플라톤은 그 논문형식의 글을 안 쓰고 대화편으로 써가지고 우리 골머리를 쓰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건데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대화편을 썼다고 합시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저작들이죠. 플라톤 이전의 철학자들, 파르메니데스도 엠페도클레스도... 이런 사람들 저작들 뭐 일부분들 남아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보면 다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파르메니데스 같은 경우에 어떤 여신의 하는 이야기 같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자기 자신이 내는 목소리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대철학사 내에서도 플라톤은 굉장히 특이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소크라테스적인 이야기들이 다 대화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다 좀 특이한 위치에, 플라톤의 대화편을 포함해서 특이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 글에 대한 플라톤의 회의적 시각

도대체 플라톤이 대화편으로 글을 썼느냐, 여기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수업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만 강조할까 해요. 그 플라톤은 쓰인 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파이드로스』 편, 이것 역시 플라톤의 대화편인데요. 그 『파이드로스』 편에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쓰인 글, 글을 써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이야기하고 플라톤 자신은 글을 썼잖아요? 플라톤은 대화편들을 썼는데, 글을 써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 것...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글은 죽어있는 것이어서 말을 할 수가 없고, 물어봐도 글이나 책이 대답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앎을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플라톤의 대화편, 『파이드로스』 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그런 흔적들을 읽을 수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플라톤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플라톤의 편지가 있어요. 편지가 플라톤 자신이 쓴 거냐, 아니냐 하는 논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한 일곱 번째 편지정도는 플라톤 자신의 작품 자신이 쓴 편지라는 생각들을 이제 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플라톤은 그 생각을... 그건 자기 입으

로 한 거죠... 글로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글을 쓰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플라톤이 그 주장을 어떤 글에다 담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글 쓰면 안 된다, 글을 통해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얻을 수가 없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신의 대화편에다가 플라톤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플라톤은 그 편지글에도 그렇고 자신이 쓴 대화편에도 그렇고, 글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식의 글을 썼느냐, 라고 했을 때, 그런 모순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대화편인 거죠. 대화편을 쓰는 것이 그런 어떤 모순적인 행태를 넘어서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 글이 지닌 진리 전달의 한계

왜 도대체 글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 거냐 하면, 글을 통해서 배울 수 없다는 생각, 이게 소크라테스의 생각... 그러니까 등장인물 소크라테스의 생각인지, 플라톤 자신의 생각인지 간에, 그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일 거예요. 어떤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이제 해보잔 말이에요. 칸트가 무슨 『순수이성비판』을 썼는데, 그것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어서 그럴 경우에는, 칸트가 한 이야기를 잘 읽고서, 잘 외우고, 물론 이해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써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될 수 있다고 하면, 진리를 깨닫는 일이 그런 방식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면, 당연히 진리를 잘 깨달은 사람이 그것을 잘 설명해주는 글을 쓰는 것, 그것이 진리를 잘 설명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쓰인 글이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가르칠 수 있을 텐데,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마도... 대화편들에서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생각들을 미루어서 알 수 있는 플라톤의 생각에 따르면, 내가 어떤 진리의 말씀이나 어떤 주장을 아무리 잘 외우고 잘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어떤 깨우침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부분들, 결국에 그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진리다, 이러이러한 것이 참이라는, 어떤 말을 해줄 따름인 거죠. 아무리 그것을 잘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참이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참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따름이에요. 예를 들어 성경이 어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인 어떤 말을 해줄 따름이에요. 칸트가 진리를 확 깨달아가지고 칸트에 나온 이야기가 다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엔 진리가 뭔지에 대해 이야기해줄 따름이에요. 그것을 읽은 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책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게 진리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 시대적 상황과 맥락에 따른 글의 한계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 책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전혀 다른 어떤 이야기에 대해, 그럼 이건 어때? 이렇게 다른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어떤 주장하고, 그 주장은 분명히 어떤 맥락 속에, 맥락에

있을 텐데, 전혀 다른 어떤 맥락에 비추어서 그 비슷한 어떤 질문을 던진단 말이죠. 예컨대 칸트는 18세기에 사는 사람이고, 파르메니데스는 기원전 6세기 사람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4세기 사람이고, 뭐 이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진리의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0세기, 21세기에 와서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과 관련해서 누군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칸트가 어떻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안 되겠죠. 그 구체적인 20세기, 21세기의 맥락, 한국이라는 상황,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 그 상황에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적용할 수 있어야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줄 수 있고요.

또 설사 어떤 진리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뭐 다양한 방식의 반론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이야기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맞다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건 나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 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칸트가, 이제 칸트 같은 사람이 진리를 얘기하고 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반론들에 대해서, 반론을 생각하고서 그 반론에 대한 어떤 대답들도 이제 했다고 해보라고요. 칸트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예컨대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데카르트의 『성찰』 같은 경우에 보면 성찰은 요만큼 있고 그 뒤에 반론과 대답이에요. 그래가지고 반론 이만큼 있고, 반론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데카르트가 이런 주장을,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어떤 진리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의 반론들을 쭉 나열하고 그 대답들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데카르트가 17세기에 썼던 그 당시 사람들의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고, 뭐 20세기나 21세기에 와서 또 다른 반론들을 제기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반론들에 대해서 누가 해주냐. 책은 그런 것을 많이 해줍니다. 책을 그냥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사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지 정말 진정한 어떤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텐데, 깨우침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적어도 플라톤이 생각하기에는 데카르트가 쓴 책 같은 거, 이런 것을 아무리 읽는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 책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다 이걸 아납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잘 외우고,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외우고 그러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걸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이러저러한 반론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런 식이죠. 누가 어떤 주장을 열심히 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앵무새처럼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반복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작업만 만약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앵무새철학... 철학이 실질적으로, 이제 철학자라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앵무새 철학입니다. 뭐 저 같은 사람도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했다, 혹은 『국가』에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 했다, 뭐 이렇게 하고요.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칸트가 이런 이야기했다, 헤겔이 이런 이야기했다, 데카르트가 이런 이야기 했다, 이런 앵무새 철학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플라톤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진짜 좋은 글을, 진짜 뛰어난 통찰의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 글을 아무리 읽어봐야, 그 글을 읽고 암기하고 아무리 해도 앵무새 철학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책을 읽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 독자들의 능동성을 요구하는 대화편

결국에는 뭘 해야 하느냐. 독자가 스스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는, 이런 작업을 독자가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떠한 깨우침도 사실은 얻을 수 없습니다. 아이큐가 책을 달달 외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깨우침은 얻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플라톤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이야기든지, 대화편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이나 데카르트의 『성찰』을 읽더라도, 독자가 스스로 생각을 자꾸 해보고 해야지 진정 어떤 깨우침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어떤 종류의 깨우침이던지 간에... 그런데 대화편, 플라톤의 대화편의 경우에는, 실제로 아까 다른 종류의 대화편에 의하면 독자가 두 가지만 보면 가능해요. 읽어서 암기하고 앵무새처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좀 이렇게 그 제대로 공부하려면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이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겠죠.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플라톤의 대화편의 경우에는 독자가 단순히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던 말이에요, 대화편의 독자는.

어떤 진리의 말씀을 쓴 책이 있다고 하면 그 책의 독자는 두 가지가 가능해요. 혼자서 막 생각해보는 독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달달 외워가지고, 아! 칸트가 그런 이야기 했구나 하고 암기할 수 있어요. 그 두 독자 중에서 암기하는 독자한테 가능성이 높고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도 앵무새처럼 많이 있다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암기하는 철학자들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뭐 그 스스로 생각하는 가능성이 갖춰져 있는, 그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화편의 경우에는, 대화편 암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특히나 소크라테스가 무슨 이야기했고, 거기에 트라시마코스가 무슨 이야기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에, 만약 거기에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 몇 번 본 것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암기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플라톤 대화편도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것이 대화편이라는 것을 상정을 한다면, 그것을 친근하게 생각을 한다면,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 대화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거 다 보고, 왜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독자가 자꾸자꾸 그런 생각을,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화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예를 들어 누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 중에서 물론 어느 정도의 과정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등장인물 혼자서 확 이야기하고 그 대화상대장들이 예, 예,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화편이라고 하더라도 대화편을 읽는 사람들이, 주인공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어쨌든 대화가 이제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읽으면서 그 중에 한 반 정도만 빼내고서 머릿속에 암기하는 것이, 암기도 잘 안되고요. 누가 이야기하고서 다른 누가 어떤 질문을 던지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그 대답을 했고, 이런 경우가 아닐까,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거나, 누가 그 내용에 반박을 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내용만 암기하는 것이 사실 많이 그렇게 투자가 안 되죠. 사실 플라톤 대화편을 읽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한참 읽고 나도 도대체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야? 이렇게 질문던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독자가 글을 수동적으로 읽는데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책을 읽고 나서, 아 거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를 익혀가지고 내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가지고 플라톤 대화편을 읽으려면, 많은 경우에 도대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 잘 모르겠고, 읽고 나서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그 대화상대자가 이제 대화하는 것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좀 멍청한 듯한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예컨대, 우리 『국가』와 관련해서 폴레마르코스가 어떤 주장을 해요. 소크라테스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면 독자가, 똑똑한 독자의 경우에는, 아, 폴레마르코스는 바보같이 왜 여기서 멍청한 대답을 해서 소크라테스한테 말려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소크라테스가 반론을 했는데 폴레마르코스가 예, 라고 대답을 하는데, 멍청이... 여기는 네, 라고 대답할 자리가 아닌데 폴레마르코스가 예,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막 읽으면서 그 울화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화통이 터져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폴레마르코스가 멍청한 대답을 했다, 그런데 멍청한 대답을 플라톤, 저자인 플라톤이 여기에도 넣었다, 플라톤도 멍청해가지고 여기에다 이런 멍청한 대답을 했구나, 뭐 플라톤 대화편 읽을 필요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식의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플라톤이 대화편을 쓰면서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진짜 멍청한 대화가, 멍청해 보이는 대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국가』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국가』가 아닌 다른 편에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잘해서 논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 대화상대자로 나온 애가 멍청하게 소크라테스한테 말려들어가가지고 지금껏 대화가 진행되는 거고, 사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대답했으면 이렇게 안 되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안 되죠.

▲ 대화형식을 통한 보편성과 현재성

대화란 것이, 대화는 말 그대로 일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화상대자하고 두 명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애가 뭐라고 대답한 것에 따라서 진행이 되요. 여기서 만약에 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대화는 다른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대화를 하다, 쪽 대화편을 썼을 때, 그 대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일회적이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지만 그 대화의 일회성이 독자로 하여금, 보편적인 주장을 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넘어서는 어떤 보편성을 획득,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그 대화는 너무나 일회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중간에 하나만, 한 스텝만 엉켜도 이렇게 안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해도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가 있고요. 그 때 독자가 만약에 여기서 이 대화상대자가 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다른 대답을 했으면 어떨까 라고 한 번 생각해 보면, 그런 방식으로 그 머릿속에서 또 다른 어떤 대화가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대화 자체는 굉장히 일회적인 하나예요. 하지만 그 중간 중간에 독자가, 여기 좀 이상한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 대화는 텍스트 안에 주어져 있는 굉장히 일회적인 대화가 아니라 독자인 나와 그 대화상대자 중에 누구와 내 머릿속의... 독자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시 일회적인 또 하나의 대화가 내 머릿속부터, 독자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독자는 매번 읽을 때마다 다른... 여기가 좀 이상한데 다시 읽어볼 때는, 예전에는 여기는 넘어갔는데 또 여기가 좀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계속 내 머릿속에서 굉장히 다른 방식의 대화가 막 진행될 수가 있어요.

여러 방식의 대화가 독자의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 얘기해주는 것을 오히려 넘어서는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한번 쓰인 글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라도 파악해서, 내가 지금 요부분이 이상한 것은 왜 이상하냐 하면 내가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현대인으로써, 현대의 한국인으로써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책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플라톤이 쓴 대화, 그 대화가 진행되는 것들을 보다 보면 중간에 여기가 좀 이상해, 아 폴레마르코스는 여기서 이런 멍청한 말을 했지만, 여기서는 애가 좀 놀라서 이런 대답했지... 나는, 옛날, 그러니까 2500여 년 전의 무식한 폴레마르코스가 아니라 2500년 동안의 지식이 내 머릿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 이제 애는 옛날 사람이니까 그렇지, 현대인의 입장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나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내 머릿속에서 그 어떤 대화가 진행이 되고, 그런 작업이 진행되는 순간은 사실은, 이것이 단순히 2500여 년 전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2500년을 넘어서, 바로 나, 독자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살아있는, 내 머릿속의 대화를 촉진시켜주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을 때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 「국가」,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중층적 대화

물론 『국가』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국가』 경우에는 자기가,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정의가 뭐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데아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앎이 어떻다, 하는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 했구나, 플라톤이 정의는 이렇게 이야기 했구나, 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편 같은 경우는요. 하지만 플라톤이 대화편을 썼다는 정신에 비추어볼 때, 그렇게 읽는 것은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는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물론 다른 책도 마찬가지로, 플라톤의 대화편 뿐 아니라 아카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종류의 철학책을 읽더라도, 단순히 철학책을 과거의 어떤 몇 백 년, 몇 천 년 전에 쓰인, 과거의 책으로만 읽으면 안 되고,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대화가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져야만 독자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플라톤의 대화편은,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플라톤의 대화편을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읽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하셔야지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폴레마르코스, 트라시마코스... 특히 1권에 그런 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1권에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왜 도대체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을까, 하는 것도 한번 내가 물어보고...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또 더 나아가서... 일단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이 사람은 도대체 이런 식으로 대답했을까, 이것이 독자가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이구요. 두 번째 던져야 될 질문은, 만약 여기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면 이 대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도 던져보면 좋아요. 물론 나라면 어떻게 그

대답을 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와 텍스트와의 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컨대 칸트가 어떤 주장을 하면, 칸트 주장이 여기가 이상한데, 하는 그것이 역시 나와 칸트가 어떤 대화를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 작업을 여기서도 해야 되는데요. 그것에 덧붙여서 만약에 플라테마르코스가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대답했다고 한다면, 소크라테스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플라톤의 대화편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작업일 수 있어요. 대화가 굉장히 중층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플라톤의 대화편을 잘 읽는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독자인 나와 텍스트에 있는 등장인물, 이 사람, 이 사람과의 대화가 될 수가 있고요. 등장인물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했던 대화와 이 사람이 했던 가상의 대화를 다 한번 생각해 보고, 실질적인 대화에서는 이 사람이라도 대체 무슨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 가지고 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대답했을까, 한번 짐작해보세요. 그것이 실질적인 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가상의 대화,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면, 그 때는 다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단계에서의 대화들이 내 머릿속에서 막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읽는 것이 그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이 『국가』를 읽을 때에 그런 방식,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것이 『국가』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초기 대화편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에 필요한 거죠. 사실 저는 초기 대화편이라는 말보다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 독해에 필요한 텍스트와의 대화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이라는 것은 시기와 상관없이 문체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 1권 같은 경우에는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이에요. 2권부터는 10권은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이 아니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를 1권하고 2권-10권이 사실은 통일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의 그 내용과 목적에 따른 통일성인데요. 문체에 있어서 달라요.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제가 거부하는 것은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은 무조건 초기 대화편이다,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문체에 있어서는 논박하는 방식의 문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특히 논박하는 방식으로 읽어지는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들을 읽을 때는, 그야말로 그런 작업 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책을 읽고 나서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으로 번역이 나와 있는 걸로는 『에우티프론』이 가장 대표적인 될 수 있고요. 『크리톤』도 그런 식이 될 수가 있는데, 『크리톤』도 아주 전형적인 것은 좀 아니구요. 아직 그렇게 번역이 아주 많이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암학당에서 나온 『리시스』, 최근에 나온 『알키비아데스』 다 소크라테스 대화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도 대화편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몇 년 내로 많은 대화편을 접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특히나 그런 대화편을 읽으실 때는, 예컨대 『리시스』나, 『알키비아데스』나, 『에우티프론』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더더군다나 애가 도대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라는 요 질문을 가지고서 이것을 읽으시면, 읽고 나서 굉장히 실망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보다 대화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읽으시면 더 큰 어떤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활동시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얘기를 좀 길게 해가지고, 그 역사적인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한두 가지만 하고, 이제 나머지는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필요한 얘기가 있으면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이 그 저술을 했던 시기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아테네에서 그리스 기원전 4세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시기가... 그 기원전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죽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연대를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당시에... 400년, 399년,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가을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보통 많이 그렇게...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399년도 한 봄, 이쯤에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죽었을 당시에 나이가 70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70이었는지, 70근처여서 70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따라서 산출해보면 기원전 469년도부터... 기원전이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469년에서 399년도까지가 소크라테스의 생애구요. 플라톤의 경우에는 기원전 427년부터 347년 정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죽었을 때 플라톤은 20대 후반, 서른 가까이 되었을 나이죠.

▲ 플라톤의 정치적 배경과 민주정에 대한 반감

소크라테스가 죽은 것은 역시, 그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아테네 민주정에서 열린 재판에 의해서 죽었고요. 이 『국가』 편에서도 드러나듯이 플라톤은... 사실은 소크라테스죠. 『국가』 편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는 민주정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민주주의가, 말하자면 가장 나은,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나은 정치체제라고 알고 있고요. 그 생각은 앞으로 이제 바뀌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반대한 그 어떤 민주정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소크라테스가 죽은 때, 그 당시에는... 이것도 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이 소크라테스가 사관... 사관다고 하면 이상하고, 그 때 소크라테스를 따른 많은 사람들 중에 민주정에 반대한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네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크리티아스라는 사람하고 카르미데스라는 사람입니다. 카르미데스라는 사람하고 크리티아스 사람 둘 다 플라톤의 외가 쪽 친척들이예요. 플라톤 자신은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카르미데스』라는 것은 이제 대화편 이후로 있고요. 거기에 크리티아스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당시 역사를 보면 아테네가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하죠. 430년경부터 전쟁을 해가지고 404년, 오랜 전쟁을 통해서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완전히 집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 시에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고요. 승리를 하면서 말하자면 괴뢰정부 같은 것을 아테네에 세우게 되요. 그곳에 30인 참주정이라고 해서, 30명의 참주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 30인 참주정의 대표적인 인물이 크리티아스입니다. 카르미데스도 30인 참주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구요. 이 사람들이 참주로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재산도 빼고 죽이고 그래요. 그러다가 1년도 못가서 전복이 되고, 30인 참주정이 전복이 되고, 민주정이 복권을 합니다. 민주정이 403년에 복권을 하구요. 복권을 하면서 어

떻게 하면... 아테네에 혼란이 너무 많으니까 참주정에서 잘못을 한 사람을 재판을 걸지 않겠다는 것이 공약 비슷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참주정 때 나쁜 짓 한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 크리티아스, 카르미데스는 전쟁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권되기 전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때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을 숙청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재판에 불러내서, 그때의 역사청산이 이제 어렵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하고서 민주정이 복권이 된 거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반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반감이 소크라테스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399년이면 거의 403년하고 몇 년 차이가 안 난다고 봐야 되요... 소크라테스를 죽였다는 생각이 고대로부터 있었습니다. 사실 고대부터도 소크라테스를, 그가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당한 것이, 소크라테스가 크리티아스 같은 사람을 부추겨가지고 민주정을 반대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크리티아스, 카르미데스는 플라톤의 친척들입니다. 플라톤은 바로 참주파의 외가 쪽 친척인데요. 어떤 요런 배경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민주정에 반대했다... 플라톤이 민주정에 반대했다는 생각을 가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그 어떤 종류의 역사적인 배경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민주정에 반대하는 그 이유들은, 사실은 플라톤이 반대하는 이유들은... 그 외가 쪽 친척입니다만, 소크라테스 자신이 참주정에 참여하는 것은 거부했구요. 30인 참주정이 있을 때 소크라테스가 같이 끼어들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플라톤의 경우에도 참주정, 자기 외가 쪽 친척들이 나쁜 짓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어떤 혐오감 같은 것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러니까 반민주적인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었고요. 다만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보고 있는 당시의 아테네 민주정의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민주정하고 소피스트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 관련들하고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트라시마코스 같은 사람이 당시의 소피스트들의 극단적인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보다 자세하게 더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제가 이제 2장의 제목을 정의는 남에게 좋은 것 이렇게 이야기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은 트라시마코스의 주장과 관련해서... 트라시마코스의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라는 유명한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것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국가』 전체를 미리 좀 가능한 한 빨리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1권 부분까지는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 3교시 역사적 배경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하자면, 플라톤하고 소크라테스...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의 대부분의 경우에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구요.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인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하고 플라톤 자신의 얘기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잡한 얘기들을 좀 했는데요. 사실 우리 수업하고 관련해서는 결국에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는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로만 국한을 해서 생각을 하자는 거였어요. 그때의 소크라테스라는 것은 역사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플라톤의 어떤 작품에 주인공으로서, 등장인물로서의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다,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이상의 이야기는 우리 수업하고 관련해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장인물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가 저자인 플라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판단중지를 좀 하고, 그냥 소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국가』 편에서 했다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 그것에 덧붙여서 저자가 그러면 거기에서 개입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저자가 이런저런 드라마적 장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누구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뭐 요런 것들은 저자가 개입하는 부분들이라고 보면, 결국에 우리가 『국가』를 읽을 때 주목해야 될 것은,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여러 등장인물들이 작중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전체 드라마를 구성하면서 저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구성했는가, 요 두 가지에 중점을 두면서 『국가』를 읽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 『국가』에 드러난 민주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를 비롯해서 플라톤이 작품 활동을 했던 역사적인 배경하고 관련해서 음... 그게 이제 그 아테네 민주정이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이 되고 있어요. 이제 민주정에서 결국에는... 그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통해서 스파르타하고 아테네가 싸움을 하구요. 그 다음에 그 전쟁에서 아테네가 지고 그 스파르타의 괴뢰정부 비슷한 30인 참주정이 수립이 됩니다. 기원전 404년이구요. 또 이제 뭐 한 1년도 못가서 무너져요. 403년에 다시 무너지고 아테네에 민주정이 복권되는데,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소크라테스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건 이제 역사적인 소크라테스죠. 역사적인 소크라테스가 처형을 당하는데, 그런 사실이 플라톤에게 이러저러한 영향을 주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그것 때문에, 플라톤이 민주정에 약간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분명히 플라톤이 민주정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특히 그 『국가』 편에서도 보면 민주정을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정치 체제 중에서 그 제일 나쁜 정치 체제보다, 그 다음 나쁜 것, 그러니까 네 번째로 되는 정체로 민주정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정체들보다 평가를 좀 낮게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는 데에 있어서 한 가지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도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왜 이제 현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정치체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플라톤은 왜 그렇게 민주정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그리고 이제 『국가』편을 비롯한 플라톤의 대화편들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가 민주정체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도록 저자가 만들었는지, 그 문제와 관련해서 플라톤, 혹은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플라톤의 대화편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가 비판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하고는... 뭐 완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비슷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다소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해요. 이제 뭐 우리 수업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민주주의가 굉장히 깨지기 쉬운 정치체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가 가장 좋다, 좋은 정치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체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자 어떤 종류의... 뭐랄까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이 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편에서도 보면, 민주정이 끝에서 두 번째로 나쁜 체제라 한다면, 제일 나쁜 정치체제는 이제 참주정이란 말이죠. 그것은 이제 독재 정치 같은 것인데요. 나중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 9권에 보면, 8권에서 9권 넘어가는데서 보면, 참주정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느냐 이야기할 때, 민주정에서부터 참주정이 태어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원전 4세기, 5세기의 사람,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서 플라톤이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예를 20세기에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세울 때 보면 그게 다 투표해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독일이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가졌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히틀러 같은 참주, 옛날 말로 얘기하자면 참주, 오늘날로 얘기하면 독재자가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 같은 것도, 소크라테스가 민주정의 어떤 취약성으로서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플라톤 활동시기의 역사적 배경 - 전쟁의 승리와 아테네의 제국화

그게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만 더 이야기한 후 『국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먼저, 아테네가 이제 민주주의를 취하게 되었고, 이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성한 것이 민주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말이에요. 그런 자부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페르시아 전쟁은 이제... 사실 6세기 말에 민주정이 성립이 되어요, 아테네가. 그 다음에 490년 정도에 페르시아가 침공을 해오죠. 다리우스의 인도 하에서 침략을 해왔다가 이제 그 전쟁에서... 페르시아는 뭐 엄청난 강대국이었죠... 이제 뭐,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의 나라들은 전부 다 도시국가들이니까 약소국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절대 이길 수 없을 전쟁이라고 다들 생각했었는데요. 마라톤 전쟁에서 아테네가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후에 페르시아가 다른 일도 있고 이래 가지고 바로 복수를 못하고, 이제 뭐 그 강대국인데 한 번 지니까, 말하자면 열이 받죠. 그래서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었는데, 워낙 또 강대국이니깐 그쪽만 신경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신경 쓸 일이 많죠. 그래서 바로 공격을 못해

요. 결국에 다리우스는 이제 죽고, 그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가 다시 또 그리스를 공격해요. 최근에 나온 영화 <300>, 그 영화도 이제 스파르타 300인이 페르시아 군대하고 맞서 싸우는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그 스파르타인 300명도 열심히 싸웠지만,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멸을 하고, 육지에서 페르시아를 버텨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테네의 경우에는 아테네 도시를 비우고, 거기서 이제 아테네가 함락을 당하고, 도시 부분이 함락을 당해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아테네의, 말하자면 작전 같은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육지에서 싸워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도시를 비워놓고서, 그런 다음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가 승리를 거두고... 거기에서 바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살라미스 해전 끝나고 크세르크세스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버려요, 한 1년 정도 더 있다가 결국 페르시아가 다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아테네... 말하자면 처음 공격해 들어왔을 때 마라톤에서, 결국에는 아테네가 이겼죠.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뭐 그러니까 동맹국들이 다 열심히 싸우고, 스파르타도 열심히 싸우고 그랬습니다만, 결정적으로 그리스가 승리하게 된 데에는 살라미스 해전, 아테네가 주력이 되었던 살라미스 해전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엄청난 강대국인 페르시아를 물리치는데 있어서 아테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그 델로스 동맹이란 것이 성립이 됩니다. 이 델로스 동맹이, 말하자면 페르시아 같은 강대국하고 싸우려면 도시국가들이 동맹을 맺어서 싸워야 되겠구나, 해서 델로스 동맹이 성립이 되고, 이 델로스 동맹에서 아테네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스파르타는 거기에서 빠져요. 그런데 델로스 동맹, 이것을 보면 이게 말이 동맹이지, 아테네가 제국화되는 어떤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동맹 국가이지만, 사실은 그 동맹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아테네에 조공을 바치는 것과 비슷한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 민주주의가 재밌는 것이 국내적으로는... 그 국내적이라는 것이 이상합니다만... 도시국가 내에서는, 그 시민들에 있어서는 어떤 민주적인 체제를 취하고 있어요. 노예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적어도 노예가 아니고 여자가 아닌, 남성 시민들에 있어서는 동등한, 어떤 권리들을 갖는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대내적으로 그런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제국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민주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힘이 지배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게 이제, 나중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어떤 직접적, 간접적인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가 막 제국화되고 이러다보니까... 그 페르시아 전쟁이 480년이거든요, 그리고 크세르크세스가 전쟁에 들어왔던 것이. 그러니까 다리우스랑 싸웠던 것은 490년이구요. 480년에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고, 한 477년 정도부터 이제 델로스 동맹이 성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후 한 3, 40년 정도 지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테네와 스파르타와의 전쟁이. 그런데 그 과정에 아테네가 제국화된 것, 그것이 영향을 미쳤어요.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중간에도 이제 보면, 아테네가 제국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데... 델로스라는 곳이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델로스에 가서 아테네 사절단들이 하는 말이, 너네는 약소국이니까 강대국인 우리말을 그냥 무조건 들어야 된다, 정의라는 것은 서로 힘이

비슷했을 때에나 문제가 되는 거지, 약소국하고 강대국 사이에서는 정의,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다, 힘이 약한 애는 힘센 애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아테네가 굉장히 위선적인 것이죠.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들이 강대국이니까, 외부적으로는 말하자면 참주정 같은 체제를 취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현재로 보자면 미국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굉장히 민주적인, 어떤 체제를 그래도 나름대로 취하겠다고... 그게 어느 정도 민주적인지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내적으로는 민주적인 체제를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국제적으로는 민주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 역사적 배경과 『국가』의 연결점 - 소피스트들의 등장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그 『국가』 편과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냐 하면... 당시 아테네의 민주정을 뒷받침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정이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누구나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테네에 있어서는 페리클레스가... 아테네의 전성기라고 이야기하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전성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페리클레스의 독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페리클레스의 영향력이 컸어요. 그러니까 사실 매년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대통령 같은 것은 아니고, 장군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한 9명인가, 10명인가 있는데... 장군들을 이제 선출하는데, 페리클레스는 매년 당첨이, 선출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됐다, 안됐다 이러고. 뭐 이러니까, 사실 누가 나서서 페리클레스한테... 페리클레스가 어떤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안티를 걸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페리클레스가 당시의 소피스트들을 후원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사상사를 보면, 특히 5세기의 그리스를 이야기하면, 소피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아테네, 아테네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아테네에서 소피스트들이 그렇게 활동하게 된 것에 있어서는, 페리클레스의 민주정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떼어놓고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페리클레스 자신이 소피스트들을 후원하기도 했고요. 또 당시에는 민주정이니까 누구나 나가서, 말하자면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누구나 나가서, 민회라든지 이런 데에 나가서 연설을 잘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아테네 전체의 정치적 방향, 이런 것들을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대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설을 잘하고, 말 잘하고 이러면 당시의 지도자격인,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피스트들이 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말 잘하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피스트들이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소피스트들의 사상이 도대체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일률적으로 소피스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공통점은 뭐냐 하면, 다들 뭔가 좀 이제 말 잘하는 법들을 가르쳤고, 물론 그것을 돈을 받고 가르쳤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런 말 잘하는 법을 가르쳐서... 그럼 이제 말 잘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할 수가 있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로 민회라든지 이런 데에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판 같은 것을 걸어가지고 뭐 재가 잘못했다, 혹은 누가

이제 나한테 재판을 걸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 소피스트 사상의 특징 - 쥘리스와 노모스의 분리

그럼 이제 그런 시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당시 소피스트들이 그 사상을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상적인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쥘리스(physis)와 노모스(nomos)를 분리하는 것이 소피스트들의 중심적인,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었는데요. 쥘리스는 자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노모스라는 것은 물론 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관습이라는 뜻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야기해서 인위적인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쥘리스가 어떤 자연적인 것을 대표하는 거라고 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을 비롯한 관습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이것은 그냥 법이니까 자연적인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특별히 인간들이 새로 어떻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신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굉장히 자연적인 것에 기반을 두는 법이 되는 것이겠죠. 소피스트 당시에 오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라든지 관습이라는 것이 자연과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소피스트들이 그걸 통해서 예컨대 어떤 종류의 관습들을 세우기도 하구요. 예를 들어서 프로타고라스라는 소피스트는 이제 그 법을 제정하는데도 이런저런 도움을 줬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기도 하고, 어떤 소피스트들은 사실은 이게, 기존에 갖고 있는 법이니, 관습이니,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자연적인 것을 따르면 기존의 법 같은 것은 굳이 지킬 필요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소피스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노모스를 굉장히 좀 중요시여긴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쥘리스를 중요하게 여긴 소피스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개를 분리시켜서 사고하는 단초를 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이후에, 그 쥘리스와 노모스의 대립이라는 것이 그리스 사상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요. 그런 계기에, 소피스트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소크라테스는 말하자면... 소크라테스도 쥘리스와 노모스의 대립 가능성 같은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소크라테스도 이 안에서 어떤 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기존의 법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소크라테스는 『국가』편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역사적인 소크라테스를 염두에 두지 않고요. 『국가』편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는데요. 『국가』편을 비롯해서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요... 소크라테스의 경우에 보면, 기존의 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컨대 아테네가 민주정적인 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민주정은 별로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말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모스하고 쥘리스가 완전히 대립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노모스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연에 기초한 어떤 종류의 규범적인 것, 혹은 인위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국가』편 같은 경우에는 정의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

면, 전통적으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 이런 생각을 소크라테스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정한 정의가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소크라테스는 가지고 있는 거죠. 진정한 정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연에 기초한, 그러니까 퀴지스에 기초한 어떤 정의, 그것이 전통적인 정의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소피스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전혀 다르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 대화편에 등장하는 칼리클레스와 트라시마코스의 예 - 정의에 대한 논의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칼리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리클레스라는 사람은 『고르기아스』라는 대화편에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전통적인 정의에 따르면 약한 사람들 다 챙겨주고, 뭐 이런 것이 전통적인 정의가 될 텐데, 강한 사람, 힘센 사람이 이것저것 다 가져야 된다는 것이 자연에 따르는 정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에 따르는 정의가 진짜 제대로 된 정의라는 생각을 칼리클레스 같은 사람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테네 사절단이 멜로스에 가서 힘센 사람의 주장을 힘 약한 사람은 들어야지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칼리클레스 같은 사람이 자연적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국가』 편에 등장하는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도, 칼리클레스하고 완전히 같지는 않습지만,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읽게 될 트라시마코스의 경우에는 자연적인 정의와 관습적인 정의,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칼리클레스는 그렇게 했었죠... 트라시마코스의 경우에는 관습적인 정의가 있는데,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을 아레테가 아니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레테라는 말은 주로 덕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덕, 또는 탁월함, 훌륭함, 이 정도의 애기로 그 번역이 되는 말인데요. 어떤 뛰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 주로 이야기되는 것이... 소크라테스가 주로 물어보는 정의가 뭐냐, 용기가 뭐냐, 절제가 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아레테인 것이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관습적인 생각에 따르면, 정의는 다 아레테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아레테가 정의, 절제, 용기, 지혜죠. 그 네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아레테구요. 그러니까 『국가』 편에도 그 네 가지가 중요한 아레테라고... 이제 4권에서 나오구요. 뭐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보면, 4주덕, 뭐 이래가지고 그 네 가지 이야기하는 것도 있었죠. 그 네 가지이고, 거기에 한 가지 정도를 덧붙인다고 한다면, 경건이라는 것이 또 중요한 아레테가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전통적인 사회 내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아레테가 네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요. 트라시마코스의 경우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정의는 아레테가 아니다, 오히려 부정의가 아레테다, 라는 주장을...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한단 말이에요.

부정의가 아레테다, 하는 이 트라시마코스의 생각은 어떤 점에서 보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칼리클레스의 생각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리기를 칼리클레스의 경우에는 자연적인 정의와 관습적인 정의를 구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관습적인 정의는 약한 애들이, 힘이 약한 애들이 좀 안 되니까, 그 힘으로 안 되니까 규범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강한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만들어놓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자연적인 정의에 따르면 강한 사람이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것이 정의다, 이런 얘기니까요. 그 얘기는 관습적인 정의는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정의와 관습적인 정의가 서로 다르다. 관습적인 정의에 따르면 약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야지 되는 건데, 아니 더 많이는 몰라도, 이제 강한 사람이 더 많이 가지는 것을 관습적인 정의가 막고 있는데, 사실 자연적인 정의는 강한 사람, 힘센 사람이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훌륭함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관습적인 정의에 따라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은 훌륭한 행위가 아닌 것이죠. 자연적인 기준에 비추어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기준과 관습적인 것이 있으면, 자연적인 기준에 따르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적인 기준에 따르는 것은 관습적인 정의에 따르는 것하고 다른 것이다. 그럼 관습적인 정의의 기준에 따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트라시마코스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관습적인 정의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트라시마코스는 관습적인 정의를 놓고 봤을 때, 그 정의라는 것은 아레테가 아니다,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부정의가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관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맥락에서 보자면 부정의가 오히려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트라시마코스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어느 정도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트라시마코스가 어떤 주장들을 하는지와 관련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 소피스트들이 막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과연 전통적으로 정의롭다고 생각되는 것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생겨날 수 있단 말이에요. 트라시마코스 같은 사람은 전통적으로 정의라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훌륭한 일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훌륭한 일이 아니면 그것은 지킬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칼리클레스 같은 사람은 전통적인 정의가 아니라 자연적인 정의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역시 전통적인 정의는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연적인 정의에 따라서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이 더 훌륭한 일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소피스트들 중에서 한 부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류들의 생각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지켜져 왔던 어떤 관습들 같은 것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말이죠... 지켜지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들 자기가 이것저것 더 많이 챙기려 하고... 그 칼리클레스가 이야기하는 자연적인 정의에서도 그렇죠. 트라시마코스가 이야기하는 부정의도 그렇고, 결국에는 자기 힘닿는 대로 많이 챙겨가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굉장히, 안정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아테네 민주정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정치체제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안정적인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외적하고 어떤 전쟁을 벌여야 한다면, 제대로 싸움을 못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자면, 플라톤은 바로... 그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결국에 아테네가 졌단 말이죠.... 이렇게 지게 된 것이 아테네가 어떤 중

류의, 아테네 사람들이, 그 민주체제하에서의 아테네가 뭔가 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스파르타에 졌다, 그러니까 제대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스파르타에게 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